

A ñ
é ß

STARTER STORY · KOREAN · C1

한 장의 무게

한 장의 무게

닥골은 전주에서 버스로 사십 분을 더 들어가야 닿는 산골 마을이었다. 마을을 둘러싼 비탈마다 닥나무가 뻗뻗이 심겨 있었고, 늦가을이면 집집마다 닥나무 껍질을 삶는 냄새가 골목 끝까지 번졌다. 소연은 그 냄새 속에서 자랐고, 스물셋이 되던 해부터 허 선생의 공방에서 종이를 떴다. 이제 일곱 해째, 새벽마다 닥죽을 짓는 손에는 제법 굳은살이 박여 있었다.

공방의 하루는 새벽 다섯 시에 시작되었다. 물통에 손을 넣고 발을 흔들어 종이를 뜨는 일은 겨울에도 멈추지 않았다. 손끝이 얼어 감각이 없어질 때쯤이면 소연은 종종 휴대폰 속 지민의 사진을 떠올렸다. 서울의 지민은 카페에서, 전시회에서, 사람 많은 거리에서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늘 소연의 손끝보다 따뜻해 보였다.

허 선생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아버지에게서 종이 뜨는 법을 배웠고, 평생 닥골을 떠난 적이 없었다. 소연을 제자로 들인 지 일곱 해가 지났지만, 그는 한 번도 그녀를 후계자라 부른 적이 없었다. 다만 좋은 종이가 나온 날이면 그것을 창가에 오래 세워 두고 들여다볼 뿐이었다.

유월 초, 허 선생은 소연이 뜬 종이 한 장을 따로 걷어 두었다. “이건 네 것이다.” 그가 짧게 말했다. 지난겨울 소연이 처음으로 두께와 결이 고르게 뜬, 스승의 검사를 단번에 통과한 종이였다. 며칠 뒤 그는 그 종이를 서울의 한 손님에게 직접 전해 드리라고 했다. “표구도 아니고 인쇄도 아니고, 옛 문서를 고치는 일에 쓰인다더라, 네 손으로 뜬 종이니 내가 가야지.”

소연은 서울행을 핑계로 지민에게 연락했다. 지민은 마침 자신이 다니는 디자인 스튜디오에 자리가 하나 빈다며, 대표에게 소연 이야기를 슬쩍 흘려 두었다고 했다. “한번 얼굴이라도 비춰. 종이 접는 것도 여기서는 다 돈이 되는 기술이야.” 소연은 웃으며 알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허 선생에게는 전하지 않았다.

서울 가는 버스 안에서 소연은 종이를 무릎 위에 놓고 한지 보자기로 몇 번이고 다시 여몄다. 창밖으로 산이 낮아지고 건물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도, 손은 계속 종이의 네 귀퉁이를 확인했다. ‘이건 종이가 아니라, 살아 있는 것이다.’ 소연은 그렇게 생각하며 보자기 매듭을 한 번 더 조였다.

서울역에 내리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우산이 없던 소연은 반사적으로 몸을 웅크려 품속의 종이부터 감쌌다. 옷은 어깨까지 젖었지만 보자기 속 종이는 한 방울도 젖지 않았다.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소연은 자신이 방금 무엇을 지켰는지 깨달았다.

약속한 공방은 골목 안쪽의 오래된 이층집이었다. 남 선생이라는 노년의 문서 수북가가 소연을 맞았다. 작업대 위에는 물에 젖어 얼룩진 옛 문서 더미가 펼쳐져 있었고, 방 안에는 오래된 종이 특유의 마른 냄새가 가득했다.

“장마 때 창고가 잠겨서, 이 댁 족보가 반쯤 물에 잠겼어요.” 남 선생이 젖었던 자리를 손으로 짚으며 말했다. “이백 년도 더 된 것인데, 배접할 종이가 마땅치 않습니다. 요즘 종이는 습기에 약해서 오히려 문서를 더 상하게 하거든요.” 소연이 가져온 종이를 펼치자, 그는 불빛에 비춰 결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결이 곱네요, 두께도 고르고.” 남 선생이 종이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 보며 말했다. “이 종이라면 저 문서보다, 아마 이걸 뜯 사람보다도 오래 남겠어요.” 소연은 그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였다. 종이가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말을, 그녀는 그날 처음 들었다.

일을 마치고 나오니 비는 그쳐 있었다. 지민과 만나기로 한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어서, 소연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젖은 어깨를 말렸다. 방금 들은 말이 자꾸 맴돌았다. 종이는 이백 년을 가는데, 자신은 그 종이 한 장의 무게조차 잘 모르고 살아온 것 같았다.

지민은 약속 장소에 늦게 나타나 반갑게 소연을 끌어안았다. 카페에 앉자마자 지민은 스튜디오 이야기를 쏟아 냈다. 요즘 브랜드들이 친환경 포장지에 관심이 많아서, 전통 종이 감성을 살린 제품이 잘나간다는 것이었다. “너 같은 사람이 딱이야. 손끝 기술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지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가움과 약간의 거리감이 함께 묻어 있었다.

소연은 지민의 말을 들으며 문득 할머니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할머니는 마당에서 늘 발을 흔들며 종이를 떼고, 소연은 그 옆에 앉아 물방울 튀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소연을 허 선생에게 데려간 사람은 어머니였다. “손끝으로 남기는 일이 있어야 한다.” 어머니는 그렇게만 말했었다.

지민이 건넨 종이에겐 면접이라는 말 대신 ‘가벼운 미팅’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 스튜디오는 통유리로 된 건물 십육 층에 있었다. 대표는 커피를 마시며 소연의 손을 보고는 “역시, 장인의 손이네요.” 하고 웃었다. 소연은 그 말이 칭찬인지 구경거리인지 잠깐 헷갈렸다.

미팅은 삼십 분 만에 끝났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고, 대표는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거리에는 우산을 접는 사람들과 여전히 우산을 쓴 사람들이 뒤섞여 걸었다. 소연은 그 사이에 서서 한참 동안 어느 쪽으로도 발을 떼지 못했다. 마음 한구석에서 ‘그냥 여기 남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막차에 가까운 버스를 타고 닥골로 돌아가는 길,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소연은 대표가 건넨 명함과, 남 선생이 마지막으로 손을 잡으며 “또 좋은 종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고 건넨 말을 번갈아 떠올렸다. 둘 다 진심이었고, 둘 다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버스는 산을 넘고 또 넘었다.

공방에 도착했을 때 허 선생은 아직 불을 켜 놓고 닥죽을 짓고 있었다. “늦었구나.” 그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소연은 남 선생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다. “이백 년을 간다고 하셨어요, 제 종이가.” 허 선생은 잠깐 손을 멈췄다가, 별다른 말 없이 다시 닥죽을 저었다.

소연은 제 방에 들어와 대표의 명함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씻고 나와 무심코 명함을 집어 든 손이, 어느새 익숙한 동작으로 종이의 네 귀를 맞추고 있었다. 반듯하게 두 번, 세 번 접어 나가자 명함은 작은 학의 형태를 갖추어 갔다. 소연은 그것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창턱 위에 조용히 올려놓고 불을 켰다.

OQOU STARTER LIBRARY

This story is from oqou's free starter library, graded at C1 for Korean readers.

Read it interactively in the oqou app: tap any word for an instant translation, listen with natural narration, and carry your saved vocabulary into every story you read next.

oqou.app

[Download oqou on the App Store](#)

oqou •